



기획의도

나쁜 형사, 정의를 묻다

정의(Justice) 실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의를 정의(Define)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눈 앞에 아동 납치 용의자가 있고, 피해자 아동은 납치되어 사라진 상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피해자 아동을 구해야 할까, 혹시 억울할 수도 있는 용의자를 위해 절차를 지켜야 할까, 피해자 아동이 당신의 아이이거나 가족이 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쁜 형사'는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할 다양한 정의를 질문한다.

나쁜 형사, 스타일을 입다

오랜 잠복과 피곤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와 냄새나는 양말,
범인을 잡기 위해 언제라도 뿔 준비가 되어 있는 점퍼와 운동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여진 형사 캐릭터와 우태석은 스타일부터 다르다. 깔끔한 셔츠에 바디 라인을 따라 딱 떨어지는 수트를 입고 현장을 누빈다. 우태석은 몸이 마음을 만들고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수트를 고집한다. 형사도 옷을 갖춰 입어야 전문한 태도를 몸에 익히고, 그래야 세상도 형사를 존중할 수 있다고 태석은 믿는다.

나쁜 형사, 매혹적인 사이코패스와 만나다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가는 범인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잡고 싶어 하는 우태석.
범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수사해온 우태석을 알아본 사이코패스 은선재.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그들을 사적으로라도 처단하고픈 욕망에 시달리는 태석에게 선재의 부추김은 악마의 유혹이다. 과연, 태석은 선재라는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를 쫓는 형사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작품소개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 방영된 신하균, 이설, 박호산, 김건우 주연의 MBC 월화미니시리즈, 영국 드라마 BBC '루터'의 리메이크 작품이다.

등장인물

우태석 (신하균)

본작의 주인공, 원작의 '존 루터' 포지션. 청인중부경찰서 강력1팀 팀장. 검거율 1위이지만, 폭력적이고 과격한 수사 방식으로 각종 징계를 받는 문제형사이다. 13년 전 청인 여고생 살해사건의 목격자 배여울이 절벽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자 구하였고 이후 목격자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연쇄살인마 장형민이 그녀를 살해하여 장형민에게 강한 증오를 느낀다.

은선재 (이설)

명광일보 사회부 기자이자 천재 사이코패스. 원작의 '엘리스 모건' 포지션. 입양전 이름은 이선재이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기억을 잃은 배여울이며 13년 전 친구 우태석과 함께 권수아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재수없게도 장형민에게 들통나 권수아를 의도치 않게 살해하게 된다.

전춘만 (박호산)

이 드라마의 악의 축, 인간말종 경찰, 만악의 근원, 민중의 고통이 청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13년 전, 권수아 살해사건의 담당형사로 장형민의 집안 뺑으로 인해 수사도 대충하고 원래는 피의자와 만나지 않는 배여울의 목격자 심문을 대질수사로 바꾼것도 모자라 배여울의 어머니가 피살당하자, 알콜 중독자였던 송만수를 고문하여, 그를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다.

장형민 (김건우)

이 드라마의 인간말종1, 성격파탄자, 싸이코패스이자 작중 내 불사신. 청인지검 검사. 본명은 장선호. 13년 전 권수아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총 7명을 살해한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배여울도 억지로 칼을 쥐어주고 찌르게 하고선 공범이라고 비웃어대고 우태석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고 우태석이 회유한 배여울이 증언을 하려하지만, 집안의 뺑으로 무사히 빠져나가고 배여울을 어머니를 살해한다.[14]우태석에게 강한 증오를 받는다.

줄거리

연쇄 살인마보다 더 나쁜 형사와 매혹적인 천재 여성 사이코패스의 위험한 공조 수사를 그린 범죄 드라마

기획 박재범 극본 허준우, 강이현

연출 김대진, 이동현 원작 BBC One의 드라마, 루터 (LUTHER)

제품구성

소비자가	88,000(vat포함)	장르	드라마
바코드	8809261380102	출시일	2019년 4월 초
자막	영어	상품구성	6DISK 전편 32회
지역코드	3		부가영상 92분